

**지식재산처, 「CEO·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」 발간****- 돈이 되는 청구범위 작성부터 글로벌 특허 확보까지, 현장 밀착형 전략 수록 -**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「CEO·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」을 발간·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.

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,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.

구체적으로, ▲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▲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▲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▲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,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.

해당 자료(파일)는 지식재산처 누리집*([링크](https://www.moip.go.kr/))을 통해 열람·입수할 수 있으며,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지식재산처 누리집 (<https://www.moip.go.kr/>) → 책자/통계 → 간행물 → 기타 간행물 → CEO·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

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구성했다”며, “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공유하여, 더 많은 연구 성과가 글로벌 특허 확보로 연결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「CEO·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」 표지

담당부서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신진섭 (042-481-8321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철 (042-481-5399)

CEO·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

- 돈이 되는 청구범위 작성부터
글로벌 특허확보까지 -

- 01 지식재산권, 왜 필요할까?
- 02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 - 선행기술조사
- 03 무엇을 보호받을 것인가? - 청구범위, 발명의 설명
- 04 발명을 실수로 공개했다면? - 신규성 상실의 예외
- 05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, 발명은 1년간 보완 - 국내우선권
- 06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? - 청구범위 유예, 임시명세서
- 07 특허심사, 빠르게 받으려면? - 우선심사, 초고속심사
- 08 심사를 늦게 받고 싶다면? - 심사청구, 심사유예
- 09 의견제출통지서란? - 심사관과의 소통 전략
- 10 '1발명 1특허출원 원칙', 그러면 남은 발명은? - 분할출원
- 11 거절결정을 받았다면? - 재심사, 거절결정불복심판
- 12 해외 특허를 위한 선택지 - 개별국 출원 vs 한 번에 출원일 확보
- 13 꼭 알아야 할 해외 특허제도

★ 지식재산처 주요 지원사업



지식재산처
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